

文學碩士 學位論文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타난 공동체 해체위기

The Crisis of Disintegrated Communities  
in *Death of a Salesman*

指導教授 朴 玉 善

2005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宋 宣 玉

# 목 차

|                              |    |
|------------------------------|----|
| I. 서론.....                   | 1  |
| II. 전통사회공동체 붕괴.....          | 6  |
| III. 가족공동체 해체양상.....         | 24 |
| 1. 사회적 관계로서의 가족공동체 해체위기..... | 26 |
| 2. 혈연관계로서의 가족공동체 해체위기.....   | 38 |
| IV. 결 론.....                 | 50 |
| ■ 인 용 문 헌.....               | 53 |
| ■ Abstract.....              | 57 |
| ■ 감사의 글                      |    |

## I. 서론

아더 밀러(Arthur Miller)의 작품은 사회극 또는 현대비극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사회극이란 어떤 사건보다는 사회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등장인물들은 사회적 상황에 처해 있는 하나의 사례로 제시되는 전개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비극은 주인공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에서 전개방식 상 사회극과 상충할 수 있다. 밀러는 사실주의 시각으로 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과 인간의 고통과 소외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와 개인간의 갈등을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비합리적인 사회체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기보다는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사회극과 비극의 절충된 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극작법상의 특징처럼 밀러는 거대한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투쟁을 단순히 개인을 사회의 희생자거나 패배자로 몰면서 일방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나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와 인간을 물과 물고기와 같은 관계로 설명하고 있듯이(Miller *The Theater Essays* 177)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보기 때문에 밀러는 사회의 문제점과 개인의 문제점이 서로 맞물려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밀러의 첫번째 작품 『행운의 사나이』 (*The Man Who Had All the Luck*)는 사업과 결혼에 성공한 청년실업가가 다른 사람의 좌절과 실패에서 얻게 되는 불안한 심리상태로부터 자기 자신의 존재의의를 찾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작품 『모두 내 아들』 (*All My Sons*)에서는

하자가 있는 준수물자를 둘러싸고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산업사회의 윤리 체계가 불일치함으로써 오는 이중적인 가치기준을 보여주면서 작가는 사회와 개인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 대한 밀러의 극작태도는 그의 성장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밀러는 자신의 모든 작품들은 자서전적이다 라고 말할 만큼(Miller *The Portable*, vii) 자신의 삶을 작품 속에 반영하였다. 숙녀복제조업자인 아버지를 둔 부유한 유태계 가정에서 태어난 작가는 1929년 경제공황으로 집안이 몰락하고 2년 동안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힘겨운 삶의 일선에서 트럭운전사, 하역부, 웨이터 등 하층민(Lowman)의 현실을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낸 밀러는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들을 인식하게 되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시작했다. 밀러는 시대적으로 경제공황과 세계대전을 겪은 직후의 미국사회의 변화된 사회구조를 그 재난의 배경으로 생각하고 물질주의와 2차대전과 같은 전쟁과 폭력 등의 사회악속에서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부도덕한 사회적 병폐의 원인을 찾고자 했다. 이후 정치에도 관여하며 공산주의자로 몰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되는 개인적인 성장과정은 그의 극작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대공황이 오직 우발적으로 생긴 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파국이고 미국사회의 이면에 있는 위선을 드러낸 것(Miller *Timebends* 114-115) 이라는 밀러의 인식은 작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덕적인 교훈을 제시하며, 다른 작가와는 달리 단순히 사회를 고발하거나 사회의 악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진한 인간애를 보여주어 감동을 안겨주도

록 했다. 또한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가정 속에서 인식하고 고취 시켜줌으로써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과 도덕성을 사회적으로 확대 발전 시켜놓았다. 즉 그는 개인과 가정에게 소우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의 비극이 갖는 사회성을 개인과 사회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점으로 여겼다. 그리고 밀러는 산업사회의 비극은 공동사회라는 개념이 위축되고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왜곡되고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양상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그의 비극은 주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에서 갈등, 즉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사이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는 블럼버그(*Paul Blumberg* 49)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단위인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모습이 미국사회를 사실적으로 나타내주고 산업사회의 폐해가 개인은 물론이고 가장 말단조직에까지 미쳐져 있어 그 뿌리가 깊음을 보여 주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급속하게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는 전통 사회의 가치관에 내재된 모순과 갈등이 분출된 현상이라기보다 현대사회의 변화된 가치관과의 충돌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반증하듯이 밀러의 작품들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2차집단 즉 이익사회의 가치라는 비인간성과 이에 수반하는 삶의 고립과, 사유화 그리고 동료로부터 개인의 소외에 의해 점차 지배되고 있는 세상에서 일차집단 즉 공동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다 (Blumberg 58)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일즈맨의 죽음』은 이렇게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동체 해체라는 위기에 있는 미국중류사회의 자화상

이라 볼 수 있다. 풀리처상을 안겨주면서 극작가로서 명성을 결정적으로 얻게 한 이 작품은 2차세계대전후 고도로 발전된 미국산업사회속의 미국의 꿈의 실상과 인간소외의 주제를 독창적인 극형식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전후 세계연극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Williams 305). 밀러는 이 작품의 무대를 미국경제의 심장부인 뉴욕(New York)에 설정하여 61살의 윌리 로만(Willy Loman)이 자신의 전부를 사회와 가정을 위해 바치도록 한다. 하지만 사회적 변혁의 물결 속에서 세일즈맨으로 34년을 보낸 회사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가족과 친구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잃어버리고 상실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채 자살하게 한다. 이는 끊임 없이 파괴되어가고 있는 미국의 한 단면을 형상화 한 것으로 물질중심 산업사회에서 생존위기에 직면한 현대인이 처한 비극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기주의적 상업윤리, 물질주의적 성공신화,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주의로 인한 인간, 가정, 사회의 윤리적인 왜곡과 붕괴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한 개인의 고통만이 아닌 현대 미국의 도덕성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밀러가 작품 속에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 자신이 체험한 1929년 경제공황이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주면서, 경제사회적 측면으로는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켰듯이 개인과 가족 등 1차 집단에는 정신적인 공황을 초래하면서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재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즉 국가나 산업사회가 추구하는 가족과 개인의 개념과 가족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족의 개념이 서로 다르고, 그 다름은 사회적인 합의로 이해되지 않고 지배적인 산업사회가 전통적인 사회와 가족의 가치관을

파괴하고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관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됨으로써 1차 집단에게는 공동체해체라는 비극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II장에서는 이렇게 산업사회에서 전통적인 사회가치관을 배척하고 비인간적인 산업사회의 가치관을 강요함으로써 율리가 겪게 되는 현상을 산업사회와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는 개인의 대립을 통해 투영하여, 그가 가진 가치관을 기초로 한 전통사회가 붕괴해 가는 모습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붕괴된 전통적인 가치관이 율리만의 사회인 가족 안에서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어 가장과 구성원들의 대립관계가 어떻게 가정해체의 위기에 빠지는가, 그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 II. 전통사회의 붕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제2의 산업혁명을 통하여 경제적인 생산력이 급격하게 향상되고, 생산방법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방식이 거의 기계화되고 자동화되어 가는 시대이다. 이는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모든 물질적인 수요가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져 모든 인간이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노동시간이 짧아져 더 많은 여가가 생겨 인간은 정신적인 궁핍이나 인간성의 메마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 합리화와 조직화가 진척됨에 따라 직업생활은 비인격화, 기계화되고, 우리의 생존은 아무 개성도 없고 창의도 없는 그리고 누구와도 임의로 대체될 수 있는 단지 기계운전의 한 기능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홀(R. H. Hall)이 주장하듯이 인간관계는 계약이나 규율에 의해 지배되는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인간관계가 된다(49-50). 또한 현대인들은 내적가치를 버리고 각자 자기의 권리와 가치를 차지하려고 투쟁하며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거대한 물질문명사회는 기계화와 대량생산에 의한 비인간적 사회를 구축하며 인간의 내재적인 가치의 희생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고, 현대물질사회와 인간관계에선 악순환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20세기의 자본주의는 전세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완미한 것처럼 보이나 물질적 풍요, 정치적, 성적 자유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중엽은 19세기보다도 훨씬 병들어 있다. 그래서 현대 산업사회를 문

명숙의 불안으로 느끼고 있는 가운데 프롬(Fromm)은 현대인간은 대화를 위한 언어를 상실하고 병어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86). 이는 현대 기계 산업 발달과 함께 사회의 병리적인 문제와 인간성 상실, 인간 소외의 극대화를 말하고 있다. 또 개인은 개성을 상실하게 되어 점차 경제 단위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가치조차 하락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산업화는 안락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대신에 그 사회 속에 사는 인간의 합리적 사고력, 판단력, 개성 등을 상실케 하여 고립화되어 불안과 고독에 빠지게 한다. 그러기에 더욱 더 감각적 쾌락에 의존하게 되고 급기야는 인간의 생존을 포기하게 된다.

프롬에 의하면 19세기의 인간의 성격구조는 도덕적이고 지성적인 민심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세기에는 인색하고, 불안스러우며 소유욕이 강한 배타적인 면이 만연되어 있으며 또 19세기에 있어서 비인간적이라는 것이 잔인하다는 것을 의미했었다면 20세기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신분열증적인 자기 소외를 의미한다는 것이다(360).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달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촉진시키는데 이는 대중화와 문명화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더 한층 자연적 환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빌딩의 밀림 속에서 한없이 고독을 씹는 도시의 인간을 만들며 정서 불안과 이기심만을 조장하게 된다. 또 서로 얼굴을 밀접하게 대하고 있으면서도 알맹이 없는 교통은 도시사회의 메말라 가고 있는 인정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산업사회의 발달은 공동사회라는 개념이 위축되고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심하게 약해지면서 비인간화 혹은 인간소외의 현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물질이 인간을 조정하는 시대 즉 얼굴 없는 대중사회의 조직 속에서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인간적인 것이 비인간적인 것에 의하여 대치된 상태, 결국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상실하고 소외된 삶의 방식에 의해 발생한 권태로운 삶이 결국은 자살을 발생시킨다(151) 는 프롬의 말처럼 현대문명의 껍질은 찬란하지만 이 현대의 혼은 병들고 가련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사회적 관계도 인정이나 우정,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적 관계보다는 이익을 바탕으로 한 냉혹하고 기계적이며 비인격적인 관계가 지배하게 되었다(박승위 22). 또한 이해관계의 불일치나 마찰, 알력 등의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갈등의 심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인간과 사회는 점점 더 정신적으로 병약해져만 가고 있었다.

사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산업화를 주도한 미국사회의 초기는 개척민들에 의해 새로운 낙원을 건설하고자하는 이상주의와 개척정신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 신세계에서 빈부의 격차나 신분의 귀천을 떠나 누구나 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사회적인 성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으며 미국적인 성공의 꿈을 추구했다. 이러한 개척시대에서 변경을 개척하는 상업자본시대가 19세기 말에 끝나게 되고, 산업화 시대에 들면서 꿈과 모험, 근면과 성실 등 인간중심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에 가치를 둔 조직화, 기계화된 사회에서 물질만능 주의와 이기주의로 미국의 이상은 급속히 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산업화 이전 사회의 공동체적 특성이었던 친족이나 이웃간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유대나 인격적 친분관계가 약화되고, 또 이해관계에 따른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거나 만연되면서 인간이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사회적 왜소화는 현대사회의 변화

가 복합적으로 끼친 영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점으로 혈연과 가족공동체로 맺어진 1차 집단과 1차적 사회관계의 몰락을 들 수 있다.

특히 1929년 미국에 있어서의 경제대공황, 제 2차 세계대전은 전통사회의 붕괴에 큰 몫을 하게 된다. 인간의 양심과 도덕이 고갈되고 사회의 윤리와 정의가 증발된 경제 대공황은 세계에 대한 인간의 견해를 변화시키고 불안감을 증가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해 전진해가려는 희망과 무한한 성공의 가능성을 믿는 전통적인 신념을 꺾어버리고 말았다. 이점에 대해 밀러는 대공황은 오직 우발적으로 생긴 돈 문제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대공황은 도덕적인 파국이었고, 미국 사회의 표면 뒤에 있는 위선을 격렬하게 드러낸 것이다(*Timebends* 115) 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대공황이후 모든 것이 변하여 혼돈과 불안의 세계가 되었다. 근면과 성실을 모토로 일했던 미국비즈니스맨들이 사라지고 구시대적인 성공방식은 이미 실현 불가능한 이상주의가 되었다. 변화된 시대는 개인에게 시대상황에 부합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과 변화의지를 요구하게 되었다. 또 2차 세계대전은 인간에게 습관화 된 폭력, 의사소통과 사회적 책임의 부재, 감정의 비인간화 등으로 얼룩진 삶을 갖게 했다.

이에 밀러는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인간의 절대 가치가 효율성과 상품성 등 산업사회의 가치에 던져지고 종속되어 인간이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전락되면서 겪게 되는 인간의 비애를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희생되고 패배하는 주인공 윌리를 통해 나타내었다. 또한 개인의 몰락과 함께 가족, 전통사회가 어떻게 위기를 맞게 되는지를 이 극 속에서 실제화하고 있다.

사실 전통사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던 농민이나 자유상공업자는 언제나 자기의 생활을 스스로 꾸려 나가며, 오늘날처럼 남에게 전적으로 종속되어 살아가는 일이 없었음을 윌리의 아버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벤 : 아버지는 훌륭하시고 아주 억센 분이셨지. 보스턴을 출발해서 가족들을 마차에 싣고 대륙을 횡단하셨어.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일리노이, 그리고 나머지 서부의 주도 다 거쳤어. 도시에 다다르면, 도중에 만든 폴루트를 내다파셨지. 정말 위대한 발명가이셨어. 도구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일평생 걸려서 만들 것도 일주일이면 해내시거든.

*Ben : Father was a very great and a very wild-hearted man. We would start in Boston, and he'd toss the whole family into the wagon, and then he'd drive the team right across the country; through Ohio, and Indiana, Michigan, Illinois, and all the Western states. And we'd stop in the towns and sell the flutes that he'd made on the way. Great inventor, Father. With one gadget he made more in a week than a man like you could make in a lifetime.*(Arthur Miller, 1995, 53)<sup>1)</sup>

무엇이든지 자력으로 성공하여 이루어 보려는 아버지와 형 벤(Ben)에게는 강인한 생활태도가 뚜렷하였다.

---

1) Arthur Miller. *The Portable Arthur Miller*. ed. Christopher Bigsby. (New York: Penguin, 1995). 이후의 텍스트 인용은 페이지로만 표시한다.

윌리 : 잘 들어봐! 맨주먹으로 나가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손에 쥔 사람이야!

해피 : 비결을 알고 싶어요.

윌리 : 신기한 것이 아니야! 그 분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쫓아 목적을 달성하신거야. 21세의 나이로 정글에 들어가서 곧 부자가 되셨지. 세상은 굴 같아서 매트리스 위에다 두드려서는 껍질을 갈 수가 없단다.

Willy : You guys! *There was a man started with the clothes on his back and ended up with diamond mines!*

Happy : Boy, someday I'd like to know how he *did* it.

Willy : *What's the mystery? The man knew what he wanted and went out and got it! Walked into a jungle, and comes out, the age of twenty-one, and he's rich! The world is an oyster, but you don't crack it open on a mattress!*(47)

이처럼 자기의 생업을 자영하였던 그들은 스스로 노력하여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의지가 강하였기 때문에 안이하게 남에게 의존하는 생활태도는 옳지 못한 것으로 여겼다. 이해관계가 맞설 때에는 그들은 목청을 돋우어 자기주장을 내세우며 ‘어떻게 하든 처음만난 사람하고 정당하게 싸우면 진다. 그런 식으론 정글을 헤쳐 나가지 못해.’ (*Never fight fair with a stranger, boy. You'll never get out of the jungle that way.*)(54) 라는 벤(Ben)의 주장과 같이 자기의 길은 자기의 힘으로 개척하여 나가야 하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 개인은 언제나 어떤 조직에 고용되어 있으며 그들은 자기의 개성을 죽이고 주어진 명령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만 하는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구실밖에 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상업자본주의는 기계문명의 발달로 대량 생산되면서 직업의식 뿐 만 아니라 개인의 개성과 가치의 인간적 특성을 상실케 하는 산업자본주의로 바뀌고 이렇게 비인간화 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기업의 세계는 그들 자신의 팽창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게다가 그 동안 미국상업자본의 성장기에는 개척자적 역할을 해왔고 미국의 자유 경쟁적 경제체제의 확립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외판원 이란 직업은 세계대전 직후의 변화된 미국 사회구조와 경제공황이 몰고 온 자유경쟁체제의 불황 속에서 꺼져가는 촛불과도 같았다. 더욱이 윌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미국은 기계문명의 발달로 세일즈맨이 하던 일은 이제 대중광고에 밀려났다. 따라서 그의 자부심이었던 세일즈맨으로서의 성공의 꿈은 한낱 망상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윌리 : 형님과 함께 뛰쳐나가, 선친을 찾아 함께 북극에서 정착할까 생각도 했었네. 떠나기로 거의 마음먹었을 때, 파커 하우스에서 데이브 싱글맨(Dave Singleman)이란 외판원을 만났지. 31개 주의 상품판로를 개척한 84세 노인이었지. 그 영감은 자기 방으로 올라가 녹색 벨벳 슬리퍼를 신고 전화를 걸어서 구매자들을 불러 84세의 나이에든 불구하고 방을 떠나는 적도 없이 생계를 꾸려 나가셨거든. 그걸 보았을 때, 외판직이 남자가 해 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직업이라 생각했거든. 그 나이로 20개 혹은 30개

의 도시를 찾아갈 수 있고, 전화해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기억되고, 사랑받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은 없었지. 알겠는가? 그가 죽었을 때, 그야말로 세일즈맨다운 죽음이었네. 보스턴 행 뉴욕의 하트포드 선 열차의 객연실에서 녹색 벨벳 슬리퍼를 신은채로 죽었으니 말이야. 장례식 때, 수백 명의 세일즈맨들과 구매자들이 참석했지. 그 후 몇 달 동안 사람들은 열차 속에서 데이브 영감 이야기로 슬퍼했지. 그 당시만 해도 개성이란 것이 있었어. 존경심, 동료간의 의리감, 고마움이 있었네만, 오늘 날은 찾아볼 수도 없고, 메말라 버렸어. 우정이나 개성 따위를 발휘할 기회조차도 없는 걸세. 내 말 알아 들었나?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나 같은 건 알아주지도 않아.

하워드 : (오른쪽으로 획 움직이며) 세상이 그런 겁니다.

Willy : I thought I'd go out with my old brother and try to locate him, and maybe settle in the North with the old man. And I was almost decided to go, when I met a salesman in the Parker House. His name was Dave Singleman. And he was eighty-four years old and he'd drummed merchandise in thirty-one states. An old Dave, he'd go up to his room, y'understand, put on his green velvet slippers- I'll never forget - and pick up his phone and call the buyers, and without ever leaving his room, at the age of eighty-four, he made his living. And when I saw that, I realized that selling was the greatest career a man could want. 'Cause what could be more satisfying than to be able to go, at the age of eighty-four, into twenty or thirty different cities, and pick up a phone, and be remembered and loved and helped by so many

*different people? Do you know? when he died-and by the way he died the death of a salesman, in his green velvet slippers in the smoker of the New York, New Haven and Hartford, going into Boston-when he died, hundreds of salesmen and buyers were at his funeral.*

*Howard : (moving away, to the right) That's just the thing, Willy.(80-81)*

윌리의 선친이나 벤과 마찬가지로 싱글맨이 활동했던 당시에는 세일즈맨의 개성, 존경심, 동업자간의 의리 등이 중시되었다. 더욱이 싱글맨은 윌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고객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너그러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공한 인물이다(Jacobson 251). 그래서 윌리는 정글에서의 모험적인 성공보다는 미소, 호감, 접촉을 무기로 일급 외판원이 되고자하는 꿈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자기 몫의 부를 차지하려는 황금만능의 사회풍조가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며 인간의 의식을 왜곡시키고 마비시킨다.

결국 인간에게 풍요와 행복을 안겨다 줄 것으로 기대됐던 현대사회의 산업화는 인간성이 인정받던 시대에서 능력본위의 냉혹한 자본주의사회로 탈바꿈하면서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윌리와 같은 소시민에겐 깊은 상처와 비극을 안겨 주게 된다. 더욱이 구시대적 성공방식과 존재 양식의 허구성을 꿰뚫어 보지 못함으로써 산업세계에서 소외되어 버린다.

린다 ; 젊었을 때 아버지가 판매처를 뚫었을 땐 회사에선 아주 좋아했지. 이전에 아버지를 끔찍이 생각하고 힘들 때마다 주문을 해주던 옛 친구들과 고객들은 모두 돌아 가셨거나 퇴직하셨다.

*Linda ; When he was young, they were glad to see him. But now his old friends, the old buyers that loved him so and always found some order to hand him in a pinch-they're all dead, retired.(60)*

부인 린다(Linda)도 윌리의 변화된 세계를 확인한다. 사람들이 변했고, 차가 변했고, 경치도 변했다. 또한 그의 집 주변조차도 라일락, 수선화, 함박꽃 등이 피어 향기가 그윽했던 아름다운 전원에서 육중한 회색 시멘트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 낡은 집에는 햇빛조차도 들지 않는 삭막한 괴물의 도시가 되어버렸다. 이는 더 이상 그가 꿈꾸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의 공간이 아니다.

윌리 : 지금은 사람들이 더 많아 지고 있어.

린다 : 더 많은 것은 아니에요. 제 생각엔...

윌리 : 글썸, 많다니까! 그것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단 말이야. 인구증가는 주체할 길이 없고,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단 말이지. 저 아파트에서 새어나오는 썩은 냄새 좀 맡아 보구려, 그리고 저 편에서 나는 냄새도...

Willy : *There's more people now.*

Linda : *I don't think there's more people. I think...*

Willy : *There's more people! That's what's ruining this country!*

*Population is getting out of control. The competition is maddening!*

*Smell the stink from that apartment house! And another one on the other side...(26)*

이는 확연한 현대 도시의 물질문명과 비정한 산업주의적 가치관을 말해 주고 있으며 아파트 숲 속에 갇혀있는 초라한 그의 집은 윌리가 추구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성공의 꿈의 좌절과 함께 붕괴되어 가는 심신의 단면을 여실히 표출해 주고 있다.

윌리: 저놈의 벽돌과 창문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잖아.

린다: 옆집 땅을 샀어야만 하는 건데요.

윌리: 차들이 줄을 지어 거리에 서있고, 이 부근에는 신선한 공기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어요. 풀도 자라지 않고, 뒷마당엔 당근조차도 키울 수 없단 말이오.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했어. 저 쪽에 있던 아름답던 느릅나무 생각나오? 비프와 내가 그 위에 그네를 매달던 시절 말이오.

Willy : *The way they boxed us in here. Bricks and windows, windows and bricks.*

Linda : *We should've bought the land next door.*

Willy : *The street is lined with cars. There's not a breath of fresh air in the neighborhood. The grass don't grow any more, you can't raise a carrot in the back yard. They should've had a law against apartment*

houses. Remember those two beautiful elm trees out there? When I and Biff hung the swing between them?(26)

아울러 사회구조가 바뀌듯 윌리가 사는 사회는 고마움, 우정이나 개성 그리고 인간성과 성실성이 지배하던 시대의 와그너(Wagner) 사장에서 능력본위와 물질주의의 냉정한 하워드(Howard) 사장으로 바뀌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선 평생을 희생해온 직원도 하루아침에 다 먹고 난 껍 껌데기 처럼 버리는 황금만능주의의 희생물로 되어 버린다.

윌리 : 난 34년간이나 이 회사를 위해 일해 왔지만, 지금은 보험금도 치를 수 없는 형편이야. 오렌지 알맹이만 먹고, 껍질은 버릴 수 없는 법이야. 인간은 과일하곤 다르지. (잠시 후) 내말 들어보게 부친께선-1928년은 나한테 굉장한 해였지. 코미션 만으로도 주당 평균 수입이 170달러나 되었으니까.

Willy : I put thirty-four years into this firm. Howard, and now I can't pay my insurance! You can't eat the orange and throw the peel away- a man is not a piece of fruit!. Now pay attention. Your father- in 1928 I had a big year. I averaged a hundred and seventy dollars a week in commissions.(81)

이렇게 철저하게 비인간적인 업적주의 산업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된 현실을 알지 못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윌리는 시대 판단능력

과 현실감각 및 사회적 적응능력을 결핍하고 사업세계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윌리의 사회적 자아실현의 실패는 뉴욕 본사에서 근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하워드와의 면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하워드 : 회사일로 보스턴에 가실 수는 없더군요.

윌리 : 왜 못 간다는 거지?

하워드 : 우리 회사 대표로는 안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윌리 : 날 해고할 셈인가 ?

하워드 : 꼭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윌리 : 하지만 돈을 벌어야 겠소. 지금 입장으론-

*Howard : Willy, you can't go to Boston for us.*

*Willy : Why can't I go ?*

*Howard : I don't want to represent us. I've been meaning to tell you for a long time now.*

*Willy : Howard, are you firing me ?*

*Howard : I think you need a good long rest, Willy.*

*Willy : But I gotta earn money, Howard, I'm in no position to-(82)*

또한 이해 타산주의자인 하워드는 비인간적인 현대문명의 상징인 자기 가족들의 육성이 담긴 녹음기의 신기함에 더 관심이 있을 뿐 윌리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하워드의 세계는 이젠 더 이상 친분이나, 이름까지

지어 주었던 옛 정, 그리고 34년간의 회사에 대한 봉사 등의 이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늙어서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냉혹하고 비정한 비인간화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윌리 : 당신이 태어나던 날, 부친께서 오셔서, 하워드란 이름이 어떠냐고 물으셨지.

하워드 : 감사합니다만, 이곳엔 일할 자리가 없는걸요. 자리만 있다면야, 당장이라도 모셔다가 앉혀드리죠. 하지만 빈 자리가 없어요.

윌리 : (점점 화가 나서) 먹고 사는데 주불 50\$면 되네.

하워드 : 하지만 자리가 없는 걸 어떡해요.

윌리 : 이보게, 물건은 팔고 못 팔고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

하워드 : 그렇지만, 장사니까, 자신이 맡은바 역할을 다해야 하죠.

윌리 : 사연을 말하지.

하워드 : 장사는 장사니까요. 어쩔 수 없이 능력별로 해야지요.

Willy : *Your father came to me the day you were born and asked me what I thought of the name of Howard.*

Howard : *I appreciated that, Willy, but there just is no spot here for you. If I had a spot I'd slam you right in, but I just don't have single solitary spot.*

Willy : *(with increasing anger) Howard, all I need to set my table is fifty dollar a week.*

Howard : *But where am I going to put you, kid?*

Willy : *Look, it isn't a question of whether I can sell merchandise, is*

it?

*Howard : No, but it's a business, kid, and everybody's gotta pull his  
lown weight.*

*Willy : Just let me tell a story, Howard-*

*Howard : 'Cause you gotta admit, business is business.(80)*

하워드의 사무실에서 윌리의 일자리에 대한 간청 그리고 하워드와의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호소는 하워드의 '사업은 사업'이라는 냉담한 말과 함께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기계음과 잔인하게 어우러진다는 칼슨(Carson 47)의 말처럼 윌리를 다 써버린 폐품정도로 여기고 있던 하워드는 내근은 커녕 아예 그를 직장에서 쫓아 내버린다. 그는 윌리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이 박탈당할 때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도 없을뿐더러 그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느낄 필요도 없었다. 그것이 결국 죽음이라도 이윤 추구의 경영주가 볼 땐 단지 폐품하나 버리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윌리도 한평생을 희생해 왔지만 효용가치가 없어져 가차 없이 다 낚아 헤어진 페타이어처럼 내동댕이쳐진다. 이렇게 돈이 성공의 여부를 판가름하며 사람이 돈에 의해 판단되어 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그의 고통과 좌절은 심화되고 자본주의 횡포 속에서 억압받으며 소외되어 더욱 더 적응 못하게 된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이 성취능력과 경제적인 단위로 평가받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자질을 갖지 못한 윌리는 외로움, 좌절감, 무기력을 가지게 되고 생존경쟁에서 밀려나 더욱 지난간 과거에 집착하게 되어 자아를 잃게 된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

적인 인물 하워드는 윌리의 자살에 도화선을 긋게 된다.

그러나 밀러는 다른 한편으론 윌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남의 호감을 사면 성공하리라는 사고방식은 현대 인간이 장사꾼의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주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상업성에 편승한 기회주의에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상황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에 개인의 파멸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성공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의 허구성이나 부도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실패한 윌리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윌리는 사회적 자아실현과 성공에의 꿈을 자신의 노력과 태도에 따라 실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밀러는 일종의 도덕화된 자본주의를 요구했던 『모두 내 아들』의 경우처럼 『세일즈맨의 죽음』이 미국사회가 단순히 기능정지 상태이거나 파괴적이지 않고 윌리의 낙오된 삶이 필연적으로 모든 중산층의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데 이는 찰리(Charley)와 버나드(Bernard)의 삶에서 입증된다.

찰리는 윌리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일자리를 제안하여 벤과는 달리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찰리 : 일자리도 제공했고, 그래서 주급 50달러도 벌수 있도록 해주고. 지방 출장도 보내지 않겠다는데. 왜. . .

윌리 : 일자리는 있어.

찰리 : 보수도 없는 일자리 ! 세상에 보수도 없는 일자리가 어디 있어? 이 보게, 그만큼 참았으면 충분하잖아! 난 천재는 아니지만, 모욕당하고 있는

지는 알 수 있지.

Charley : I offered you a job. You can make fifty dollars a week. And I won't send you on the road.

Willy : I've got a job.

Charley : Without pay? What kind of a job is a job without pay? Now, look, kid, enough is enough. I'm no genius but I know when I'm being insulted.(93)

찰리는 성공 욕망을 탈 개성화시켜 자신의 정체와 직업을 분리하고, 치부에 생명을 걸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는 개인의 개성과 호감으로 금전상의 성공을 믿고 있는 윌리와는 다르다. 찰리는 미국자본주의가 직면한 핵심적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인물(Abbotson 46)로 보여 지는 만큼 물질적인 성공에도 결코 타락하지 않으며 분배와 인간관계의 미덕을 잃지 않는 착실한 양심적인 자본주의 인물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또 윌리가 인기 없는 공부벌레라고 조롱했던 찰리의 아들 버나드 역시 출세한 변호사로서 정의를 구현하는 성공신화를 입증한다. 이는 황금만능의 현대사회에 아직 전통사회의 인간미가 상실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줌으로써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낙관적인 면을 나타내 주고 있다.

위에서 알아 본바와 같이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른 경우 상반 되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여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회적 가

치관은 변화하나 실제 행동은 변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행동은 변화하나 가치는 변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현대인들은 급속한 사회 변혁의 과정에서 때로는 전통지향으로, 때로는 근대 지향으로 변화를 강요받게 됨으로써 공동체 해체라는 비극을 맞게 된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현실에 맞게 적응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음을 우리는 찰리를 통해서 보았다. 결국 사회란 인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인간 파멸의 장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 III. 가족공동체 해체양상

산업사회의 도래는 물질적 풍요와 개인의 자유를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개인화를 재촉함으로써 가족의 공동체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가족조직의 분화를 초래한 부정적 측면도 보여주었다.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사회적 변화가 이뤄지면서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달라졌고, 이러한 변화는 가족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서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변화도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전통적 가족가치와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가족공동체가 붕괴되면서 겪게 되는 가족구성원의 갈등은 개인이 사회에 대한 갈등과 같이 그 양상을 함께 하고 있다.

가족은 개인과 사회라는 논리적 두 극단 사이에 위치한 중간자적 입장이라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개인에 있어서 견고한 사회적,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자기동일성을 파악하지 못해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상실할 때 가족은 이에 대한 대안과 위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역할은 사회적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형성되듯이, 사회와의 연대성을 상실했을 때 개인의 존재가치는 없어지고 이는 사회뿐만 아니라 가족에서조차 확대되면서 가족해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윌리의 사회적 역할은 세일즈맨이지만 가정에서의 역할은 가장이다. 그가 세일즈맨으로서 산업사회에서 겪게 되는 상실감과 패배감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난다. 더욱이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운명적으로 가족에 속하게 되고 가족생활을 통해 육체적, 심리적 및 사회

적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패배감과 상실감은 더욱 크게 작용하게 된다. 사회가 윌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듯이 가족구성원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때 이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이며, 그에게 사회에서의 죽음이 해고라면 가족에서의 죽음은 이극의 결말에서처럼 자살일 것이다.

이 작품의 원제인 『그 남자의 머리속』(*The Inside of His Head*)이 나타내듯이 이 작품은 한 가정의 내면적 갈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윌리의 가족구조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로 이루어진 미국의 전통적인 가족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Austin 61) 이 극은 한 가정이 아니라 미국의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가정의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부장적인 형태에서 아버지가 가정의 경제를 전담하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이며 자녀들로 구성되는 형태는 윌리의 전 세대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인 윌리와 벤으로 구성된 똑같은 가족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세대간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극은 윌리에게 있어 아들들은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넘어 윌리가 지금의 아들을 만드는 데에는 그의 잘못이 크다는, 가족에게 깊숙이 투영되어 있는 가정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춘 논평(Freedman 44)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가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 양상은 가정이 가족에게 강요하여 사회의 붕괴현상이 가족의 붕괴양상으로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윌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가족과

함께 안락하게 가정을 꾸미는 것이다. 그러나 급속히 진행되는 현대산업 사회는 도시화로 나타나고 비인간적인 도시화는 주변 환경을 더욱 삭막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족들이 안락하게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윌리의 가족은 지금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산업사회의 각박함을 반영하고 있다. 윌리는 외판원으로서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고, 장남 비프(Biff)는 여러 직업을 전전하고 차남 해피(Happy)는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어머니 린다만이 집을 지키고 있다.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족이란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이 사라지고 가족구성원들은 서로 갈등하며 가족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산업사회가 강요하는 물질적 가치에 기반을 둔 비인간적인 정체성을 추구함으로써 고통받게 된다.

가족을 구성하는 형태로 크게 사회적인 계약으로 이뤄지는 결혼관계 더 나아가 친분관계와 혈육으로 연결되는 혈연관계로 나뉘서 그 해체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사회적 관계로서의 가족공동체 해체위기

결혼관계에 있어 전통적으로 남편은 돈을 벌어오는 사람(*bread winner*)이고 아내는 가정 일을 하는 사람(*home maker*)으로 인정되어왔다. 윌리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18살부터 34년간 세일즈맨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아내 린다도 남편의 수입을 쪼개서 할부금을 붓거나 기운 양말을 신으며 알뜰하게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고 숭배할 정도로 전통적인 아내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뒤로

높이 솟고 모가 난 형체들이 사방에서 윌리의 집을 에워싸고 있다는 극의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업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는 전통적인 가정에까지 점점 침범해 들어오면서 사랑과 헌신이라는 부부간의 유대관계는 물질과 능력이라는 산업사회의 가치들로 대체되어간다.

개인적인 수완과 능력을 중시하는 세일즈맨으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윌리는 가정에서도 가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가부장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족공동체를 이끌어간다. 허공에 대고 결코 오지 않을 구조대에게 소리치고 있는 공포에 질린 남자(*Timebends, A Life*, 130)인 로만은 가끔 낡은 고물자동차를 몰면서 길에서 벗어나는 듯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그가 처한 삶의 현실은 60세가 넘도록 외판원으로 700마일이나 되는 먼 곳을 찾아다니면서, 무거운 샘플상품을 들어올리기도 힘에 벅찬 일을 하며 지쳐있는 늙은이이자 산업사회의 퇴출자의 모습이다.

서부개척시대의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로서는 물질중심의 산업사회에서 그의 역할은 축소되고, 사회적 정체성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갈등과 위기감을 겪게 된다. 윌리는 삶에 지쳐 있을 때마다 풀과 나무들이 자라는 곳에 씨앗을 뿌리는 전원생활을 갈망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증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삶을 바라지만 변화하는 산업사회에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그가 가족공동체에서의 조그만 변화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린다 : 여보 오늘 최신식 미국제 치즈를 샀어요.

윌리 : 스위스제를 좋아하는 줄 알면서 미국제는 왜 사는 거요?

린다 : 바꿔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윌리 : 바꾸는 건 싫어. 스위스제가 좋단니까. 왜 나 하고 싶은 데로 내버려 주지 않소?

*Linda : Willy, dear, I got a new kind of American-type cheese today. It's whipped.*

*Willy : Why do you get American when I like Swiss?*

*Linda : I just thought you'd like a change*

*Willy : I don't want a change! I want Swiss cheese. Why am I always being contradicted? (25-26)*

윌리의 스위스제 치즈를 고집하는 이유로 변화가 싫다는 것과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의 사회적인 위기감과 함께, 전통적인 가부장제인 가족에서도 가장의 결정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더욱이 지쳐서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린다는 최신식 미국제로 치즈를 바꾼 이야기와 이곳 뉴욕에서 사무직을 맡도록 회사 사장에게 부탁하라는 말을 꺼내며,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고 동시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산업사회의 무능력자로서 윌리를 부각시키면서 그와의 근본적인 인식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가족들로부터 안정과 위안을 필요로 하지만 가정에서 그를 반기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이다. 변변찮은 두 아들과 생활비를 걱정하며 삶에 지친 아내는 보험료와 모터수리비 등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그에게 가족의 위안보다는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로 비춰진다.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온 윌리가

아내와 나누던 대화에서 보듯이 사회적 정체성을 상실한 가장에게 린다가 위로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다.

윌리 : 지불해야 할 돈이 얼마지?

린다 : 우선 냉장고 월부값에 16달러하구-

팬 벨트가 끊어졌어요. 그 값이 1달러 80센트예요.

윌리 : 저놈의 냉장고를 고르는 게 아닌...

린다 : 세탁기가 9달러 60센트, 진공 청소기가 3달러 50센트 있는데, 이걸 15일까지 내야 해요. 그리고, 지붕수리에 21달러 남았어요.

Willy : *What do we owe?*

Linda : *Well, on the first there's sixteen dollars on the refrigerator- the fan belt broke, so it was a dollar eighty.*

Willy : *I hope we didn't get stuck on that machine.*

Linda : *Well, there's nine-sixty for the washing machine. And for the vacuum cleaner there's three and a half due on the fifteenth. Then the roof, you got twenty-one dollars remaining.*(42)

한편 린다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두 아들에게 남편을 옹호해주고 대변해주는 인물로 결코 집 바깥에 나오지 않는 전통적인 아내이다(Griffin 49). 동시에 세일즈맨의 아내로서 남편의 사회적인 한계를 인식하며 남편의 수입을 쪼개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회적응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는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곧 산업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이고 가족

에게 자신이 사회적 패배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없는 남편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다. 윌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가 쌓아올렸던 사회공동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실체를 감추려고 할 뿐 그런 남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남편이 가장으로서 권위를 잃게 되고 가족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린다의 노력은 윌리에게 형 벤이 도시를 떠나 알래스카로 가자는 제안을 할 때도 나타난다.

린다 : (벤을 무서워하며 화를 낸다) 그런 말씀 마세요. 여기서 이대로 사는 게 행복해요. (벤이 웃는 동안 윌리에게) 세계를 정복해야 맞인가요? 남들도 당신을 좋아하겠다. 아이들도 따르고 또 누군가가 (벤에게) 맞아요. 일전에도 와그너사장의 말이 이대로 간다면 사원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여보?

Linda : (Frightened of Ben and angry at him) Don't say those things to him! Enough to be happy right here, right now. (To Willy, while Ben laughs) Why must everybody conquer the world? You're well liked, and boys love you, and someday-(To Ben)-why, old man Wagner told him just the other day that if he keeps it up he'll be a member of the firm, didn't he, Willy? (84)

그녀가 걱정 한 것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가족공동체의 붕괴와 윌리의

사회적인 자아상실이다. 린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공동체이기에 아이들이 따르는 아버지와 가족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는 가정을 위한 사회적인 관계였다. 결혼과 사회적인 책임으로부터 도피하여 금과 모험을 찾아 가족을 버리고 떠난 윌리의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남긴 고통과 상처를 린다는 인식하고 안정된 가족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격변기는 이런 린다의 바램을 무산시키게 된다. 윌리는 미국의 변경시대가 막을 내릴 때 태어났고 과도기에 성장한 그는 적당한 정체성을 찾지 못했다(Bates 172). 왜냐하면 세일즈맨이라는 직업은 윌리의 시대에는 낡은 존재이기 때문이다(Nevins and Commager 225). 윌리가 극중에서 1928년과 1942년 사이를 오가며 혼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격변기에서 그가 겪는 사회와 가족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린다 : 당신이야 어딜 가도 환영해요.

윌리 : 그렇지 않아, 린다.

린다 : 나한테 제일이에요.(잠시 사이) 제일이에요.. . .

윌리 : 당신이 최고야, 린다. 당신은 친구야, 그거 알아? 출장길에서 나는 가끔 당신을 껴안고 키스하고 싶어.

(웃음소리가 더 커지고 윌리는 왼쪽 밝은 부분으로 움직인다. 왼쪽에는 여자가 막 뒤에서 나와 모자를 쓴 채 가상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웃고 있다.)

윌리 : 나는 너무 외로워. 특히 영업이 안되고 말할 상대가 없을 때 말이오. 이제 다시 아무것도 팔수 없고 밥벌이를 하기도 아이들을 위한 일자리

를 만들기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요. . .

여자 : . . . 내가 당신을 선택했어요.

*Linda* : Willy, *darling*, you're the *handsomest man* in the world

*Willy* : Oh, *no*, *Linda*.

*Linda* : *To me you are*. Slight pause. *The handsomest*. . . .

*Willy* : (With great feeling) You're the *best* there is, *Linda*, you're a pal, you know that? *On the road - on the road I want to grab you sometimes and just kiss the life outa you*.

(The laughter is loud now, and he moves into a brightening area at the left, where the woman has come from behind the scrim and is standing, putting on her hat, looking into a mirror and laughing)

*Willy* : 'Cause I get so lonely - especially when business is bad and there's nobody to talk to. I get the feeling that I'll never sell anything again, that I won't make a living for you, or a business, a business for the boys. . . .

*The woman* : . . . I picked you. (43)

썰렁한 현재의 부부관계와는 달리 과거에 로만 부부는 서로에게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며 전형적인 전통적 가족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아내로서의 린다는 남편의 사기를 북돋아 준다는 의미에서는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한다고 볼 수 있으나 세일즈맨으로서 힘들어하는 남편의 모습을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내의 이러한 무조건적인

칭찬과 격려가 가족에서의 가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사회에서 세일즈맨으로서의 상실감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켜 윌리로 하여금 비극적 파국을 재촉하도록 하는 결과를 자아낸다. 린다는 남편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여지를 전혀 주질 않고 그를 외롭게 하고 있다. 그녀는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지 가족경제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지에 대해 말하면서 윌리를 사회속으로 몰아내고 있다. 린다에게는 월부로서 집과 가재도구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월부를 갚지 못하면 가족공동체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산업사회의 영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윌리는 자신의 왜소해진 사회적인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린다에게 자신의 판매량을 속이고 자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가부장적인 가족공동체에 있어 사회적으로 무기력해진 남편에게 가족들의 기대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고통으로 와닿게 되고 이는 사회와 가족에서 윌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가족공동체의 해체라는 위기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가정에서 남편만을 기다리며 산업사회로부터 차단되어 있어 산업사회의 실상을 알 수 없는 린다로서 윌리가 사회에서 겪고 있는 고민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작가인 밀러도 밝혔듯이 린다가 남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는 다른 여자를 품에 안은 외로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Parker 108). 장면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사회에서 만난 여자는 린다에게서 얻지 못한 사회적인 위안을 윌리에게 준다. 윌리는 가정에서 린다가 자신을 최고로 생각해주듯이 사회에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보스턴에 출장 갔다가 불륜관계를 맺은 거래처 직원인

프랜시스(Frances)는 윌리를 자신이 선택했으며 다른 세일즈맨과 비교해서 최고라는 말로 그의 상실해 가는 정체성에 보상과 사회 속에서의 위로움에 대해 위로를 준다. 윌리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의 사랑은 사회에서의 불륜으로 인해 죄의식으로 변질되고 만다.

현실적으로 린다는 전통적인 아내 역할에 충실했지만 산업사회에서 변해가는 가족공동체의 역할에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는 남편에 대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정신적인 공황에 빠져 있다.

린다 : . . . 어떻게 아버지한테 말을 하니? 날마다 내려가서 고무파이프를 치워버리지만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다시 놓는단다. 내가 어찌 그렇게 아버지를 모욕할 수 있겠니?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저 겨우 하루하루 넘기고 있을 뿐이란다. . . .

Linda : . . . *How can I mention it to him? Every day I go down and take away that little rubber pipe. But, when he comes home, I put it back where it was. How can I insult him that way? I don't know what to do. I live from day to day, boys. . . .* (63)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은 전통적인 아내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는 고무파이프로 자살하려는 윌리의 행동을 방관할 수밖에 없다. 윌리가 산업사회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겪고 있는 모습을 린다도 역시 겪고 있으며 이는 산업사회에서 몰락하고 있는 가족공동체의 해체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외적인 관계로 가족과 같이 옆집에서 살아온 찰리와 의 관계에서도 윌리가 겪게 되는 가족적 유대감의 붕괴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오랜 친구인 찰리는 사회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윌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돈을 꾸어주기도 하며 그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찰리는 자본주의제도에 타협하지만 인간미를 잃지 않은 인물(Hynes 282)로 윌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는 윌리와 달리 초기에 세일즈맨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상업사회의 부적응 자였지만 산업사회에서는 성공적인 사회적 위치를 갖게 된다. 이렇게 상반된 사회적인 정체성으로 윌리는 찰리를 무식한 놈으로 찰리는 윌리를 철없는 아이(87)로 서로 질시하지만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인간중심사회이다. 찰리가 산업사회에서 성공을 했으면서도 윌리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산업사회에서는 사라져가는 우정이나 동료애와 같은 전통사회의 가치관을 윌리의 관계를 통해 산업사회에서 채울 수 없는 인간에 대한 그리움이나 외로움을 나누고자 했음이다. 한편 윌리는 아들이 자신을 찰리와 비교할 때 ‘그렇다고 찰리를 아버지로 삼을 수는 없지 않느냐’((Then make Charley your father? You can't do that, can you?)(60)는 말을 할 만큼 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였고 가장으로서 아들 버나드를 훌륭한 법조인으로 키운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내 줌과 동시에, 가족의 관계란 사회에서처럼 부속품으로서 교환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이해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

그리고 윌리는 실적이 줄어서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받지도 못하고 그나마 해고당하여 절실하게 일자리를 필요로 하지만 찰리의 일자리 제안을

거절한다.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윌리는 일자리를 받아들일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자넨 둘도 없는 친구 세’(Charley, you’re the only friend I got.)(95) 라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과 같은 친구관계를 사회에서의 인연으로 인해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찰리는 이런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윌리와는 달리 ‘내가. 삶을 버텨온 것은 무슨 일이고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My salvation in that I never took any interest in anything)(93) 이라는 말처럼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인이기 때문이다. 그의 시각에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철없는 아이일 뿐인 윌리가 진정으로 바란 것이 일자리보다 가족적인 위로인 것을 그는 알지 못했기에 그에게 진심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인간미와 동정이 넘치는 인물로 윌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돈을 꾸어주는 친구였지만 진정 윌리의 비극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윌리는 그가 원한 전통적인 친분관계를 찰리와 이루지 못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린다도 비록 전통적 가족속에서 착한 아내였지만, 산업사회가 사회조직원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가장의 역할로서 윌리를 이해할 뿐 그의 인간적 고민을 나눌 수 없는 반쪽 아내였고 이로서 진정한 부부관계가 무너지는데 일조한다.

린다 : 여보, 날 용서하세요. 울 수도 없네요. 어떻게 된 건지 울음도 안나와요. 정말 알 수 없어요. 뭣 때문에 그런 것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날 좀

도와줘요. 울 수도 없다니깐요. 여보, 난 울 수도 없어요. 난 당신이 또 출장 간 것 같아요. 당신이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나요. 왜 그런 것일 한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마지막 집세를 냈어요. 바로 오늘말이에요.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목이 메어온다) 이젠 빛도 없고 흥가분해졌는데 . . .

*Linda : Forgive me, dear. I can't cry. I don't know what it is, but I can't cry. I don't understand it. Why did you ever do that? Help me, Willy, I can't cry. It seems to me that you're are just on another trip. I keep expecting you. Willy, dear, I can't cry. Why did you do it? I search and search and I search, and I can't understand it, Willy. I made the last payment on the house today. Today, dear. And there'll be nobody home. (A sob rises in her throat.) We are free and clear. (Sobbing more fully) released: we are free. . . . (130-131)*

윌리의 장례식에서 남편의 죽음에 울음이 나오지 않을 만큼 린다가 돌아오길 바라는 인물은 자연인 윌리가 아닌 세일즈맨으로서 가장일지 모른다. 산업사회에서 가정을 꾸미고자한 린다에게 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감춰지게 된 것이다. 즉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향한 의식의 변화는 가족의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원래의 역할을 약화 시켰다. 결국 산업사회에서 가족을 의미하는 집을 이제는 할부금을 완납함으로써 완전히 소유하게 되었지만 정작 가장이 없는 이 가족은 전통사회의 붕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부각된다.

## 2. 혈연관계로서의 가족공동체 해체위기

산업사회에서 가족의 해체위기는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적 추세에 가족공동체가 적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양상을 보여준다. 가족공동체에서 가장 사회적인 관계로 볼 수 있는 부부 관계나 친구관계에서 미친 산업사회의 영향이 그 전통적인 관계에 깊숙이 미치고 있음을 살펴보았지만 그 양상은 혈연관계에서 더욱 심각하고 영속적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부부나 친구간의 관계에서는 각자가 개인적인 사회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간의 혈연관계 속에서는 부모의 사회적인 영향이 자식에게는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가족 속에서 자아중심적인 자녀가 성장하여 한 사회공동체 속으로 연결되어 개인의 한계를 초월한 사회적 인간으로 가는 시련장이 가족집단이다. 특히 전통사회에서 아버지란 존재는 가정의 가치관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족공동체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가족구성원에게 가치관의 부재로 연결되고 이는 그 가족구성원에게 정신적인 공황을 안겨주게 되며 그 가족이 결손가족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품에서 윌리는 물질적인 성공만이 가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세일즈맨으로서 성공의 꿈을 추구하고자 자신의 성공과 자식의 성공이라는 환상으로 삶을 지탱하였다(Brown 208). 윌리는 나름대로 산업사회의 물결에 편승하여 가족보다는 가족외적인 문제에 전력을 다한다. 그는 산업사회에서 가족내적인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산업사회에서 두 아들의 성공이 가족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에서 성공철학이 담긴 자신의 가치관을 두 아들에게 주입하였다. 이런 가족외적인 문제 다시 말해 산업사회에서 성공하는 문제는 가족구성원들에게 가족공동체를 등한시하게 하고 특히 가장에게 가족을 통솔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등지게 하여 내부결속력을 약화시키게 한다. 문제성 있는 아버지는 미국 연극의 주된 소재라는 지적(Lyons 126)처럼 가족을 버리고 집을 떠난 아버지는 남아있는 아내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자식들에게는 그를 향한 동경과 가치관의 혼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산업화에 따른 미국의 가족공동체가 겪는 보편적인 위기상황이다.

윌리 자신도 가장의 부재로 인해 가치관의 부재를 겪은 인물이다. 그는 4살 때 아버지가 알래스카로 떠나고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가장의 가치관을 물려받지 못하고 아들에게도 물려줄 가족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 윌리의 전 세대에서 이미 전통적인 가족공동체가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산업사회로 가면서 그 양상은 급속히 진행되고 과도기적 현상이 윌리의 가족에게 나타나게 된다. 전통 가족의 의연하고도 아름다운 이상은 역사적 사실이기보다 허구적 신화에 가깝다. 과거의 이상은 그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형성된 것이며, 현재의 이상적 가족은 실제 구조와 이념 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된다. 이런 사회와 가족의 상호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공동체가 유지되어야 하지만, 윌리의 가족은 가장인 윌리가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가질 수 없으므로 인해 산업사회에서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

가족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시대적인 갈등 속에서 윌리는 과거의 회상 속에서 형 벤과 싱글맨을 통해 상실한 아버지의 가치관을 찾으려고 한다. 그는 17살에 아버지를 찾아 떠났다가 아프리카 밀림에서 부를 이룬 벤과 아버지와 같은 세대인 산업사회에서 전설적인 성공을 이룬 싱글맨에 정신적인 기반을 두게 된다. 문명사회와 동떨어진 곳에서 성공한 벤과 시대적으로 구시대에 살았던 싱글맨은 윌리에게 산업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줄 수 없다. 벤은 개척시대에 성공의 화신이었고 싱글맨은 그의 장례식 때 수백 명의 세일즈맨과 구매자들이 참석할 만큼 인간에 대한 존경심과 의리가 있던 산업시대의 최고의 세일즈맨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의 사회공동체가 해체되어지는 지금 윌리는 산업사회의 변화에 희생되는 과도기적인 인물이다.

윌리 : . . . 웬일인지 모두들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 . . 걸어 들어갈 때 나는 알 수 있어. 나를 비웃는 것 같아. . . .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지나쳐 버리거든. 나 같은 것은 눈에 띄지 않는 모양이야. . . . 다른 세일즈맨은 쉽게 한단 말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억제할 수 없거든. 난 말이 많아. 남자란 말이 많으면 안되는 법이야. 찰리만 보더라도 말수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모두들 그 친구를 존경하거든.

Willy : You know, the trouble is, *Linda*, people *don't* seem to take to me. . . . I know it when I walk in. They seem to laugh at me. . . . I *don't* know the reason for it, but they just pass me by. I'm not noticed. . . . Other men-I *don't* know-they do it easier. I *don't* know

why-I can't stop myself- I talk too much. A man oughta come in with a few words. One thing about Charley. He's a man of few words, and they respect him. (43)

또한 아버지시절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윌리는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버림 받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에 반해 찰리는 '타협의 상징'(a symbol of compromise)(Huftel 114)으로서 산업사회와 전통사회와의 갈등을 겪지 않고 산업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윌리와 대조를 이룬다. 찰리는 산업사회와의 타협을 통해 자아를 구축했으나 윌리는 아버지의 가치관이 반영된 전통사회와 산업사회의 갈등에서 방황하는 것이다.

윌리의 두 아들 역시 윌리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 윌리는 그가 속한 또 다른 공동체인 가족 속에서 자신이 사회에서 실패한 자아를 보상받으려 한다. 특히 아들중 비프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다. 그는 비프를 통해 자신의 자아를 실현시키려고 했다. 윌리의 아버지가 장남인 벤에게 자신의 부성을 전했듯이 그도 장남인 비프에게 자신의 자아를 심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질서이고 따라서 윌리에게 비프는 젊은 신이나 헤라클레스와 같은 존재였다.

윌리 : 마치 신 같았지? 헤라클레스라고 할까? 태양이 그 녀석 주위를 돌고 있는 것 같았어. 녀석이 나한테 손 흔들던 것 기억나오. 세 대학 대표들이 비프를 둘러싸고 서 있던 운동장 바로 오른쪽에서 말이요. 내가 드나들던 구매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비프가 나올 때 박수갈채를 보냈지. 로먼,

로먼, 로먼! 아무렴. 그 놈 크게 될 거야. 그렇게 굉장한 별은 쉽게 사라질 수는 없는 거지.

Willy : *Like a young god. Hercules-something like that. Ant the sun, the sun all around him. Remember how he waved to me? Right up from the field,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ree colleges standing by? And the buyers I brought, and the cheers when he came out-Loman, Loman, Loman ! God Almighty, he'll be great yet, A star like that, magnificent, can never really fade away!* (70)

그러나 윌리는 가문의 낡은 가치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물(Bates 164)로써 그는 자신이 가졌던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을 아들에게 주입시킨다. 윌리는 성실히 공부하면서 노력하기보다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자재를 훔쳐오게 하고 인기만 있으면 학교성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들의 인기와 도둑을 개인적인 능력이나 용기로 치부한다. 개성과 능력을 강조하던 시대에 용인되었던 비프의 이러한 행위는 산업사회에서는 거짓말과 도둑질로 범죄행위가 된다. 이후 비프는 수학시험에서 낙제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절도죄로 감옥에 가고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한다. 또한 비프는 산업사회에 맞지 않은 가치관의 대물림으로 사회에 발붙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공동체에서도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며 방황하게 된다.

게다가 비프가 보스턴으로 출장 간 아버지의 부정한 행위를 목격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바꿔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Popkin

윌리 : 그 여잔 나에게 하찮은 존재야. 난 쓸쓸했거든. 몹시 쓸쓸했어.

비프 : 그 여자한테 어머니 스타킹을 주셨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가려고 일어난다.)

윌리 : (움켜잡으며) 명령이야!

비프 : 봐요. 거짓말쟁이!

윌리 : 그 말 사과하지 못해!

비프 :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기꾼! 사기꾼!

Willy : *She's is nothing to me, Biff. I was lonely, I was terribly lonely.*

Biff : *You- you gave her Mama's stockings! (His ears break through and he rises to go)*

Willy : *(grabbing for Biff) I gave you an order!*

Biff : *Don't touch me, you-liar!*

Willy : *Apologize for that!*

Biff : *You fake! You phony little fake! You fake! (115)*

비프는 산업사회의 부도덕한 세일즈맨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 주던 아버지를 잃게 된 것이다. 비프가 불륜현장을 목격하게 됨으로써 윌리는 가족의 영웅에서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로 떨어졌고 가장의 권위가 사라진 그의 가정도 몰락하기 시작한다. 사회의 거래처 여직원과의 불륜이 구매자와의 접촉을 위한 사업상의 선택이라고 윌

리는 말하지만 이는 가족과 특히 비프에게 정신적인 성장이 멈출 정도로 배신과 충격을 안겨준 것이다.

이 불륜장면은 또한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이해와 동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하워드로부터 해고당하고 아들이 기다리는 식당으로 온 윌리가 비프에게서 희망적인 소식을 갈망하는 장면은 수학에서 낙제성적을 받고 온 비프가 아버지로부터 해결방법을 희망하는 장면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들들이 여자와 함께 나가 버리면서 버림받게 되는 윌리는 보스턴에서 불륜현장을 목격한 비프의 배신감과 충격을 떠올리게 된다. 올리버로부터 사업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어진 비프는 절망에 빠진 윌리를 식당에 내버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비프는 차차 자신의 실패로 인해 공허하고 비참해진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과 양심의 고통을 느끼며 반항적이고 자포자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성숙한 변화를 보인다. 결국 윌리와 비프는 서로에게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런 죄의식은 불륜이나 패륜이라는 도덕적인 관점으로 표면화되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사업과 관련된 사회적인 요인으로 해서 생긴 것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산업사회에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프는 산업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와 이상을 실현시킬 수 없는데 대한 강박과 내적인 억압을 겪고 있었으며 이로서 진정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갈 수 없었고 올바른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지 못하고 항상 가족 주위를 떠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식당에서 있었던 일 이후 산업사회에서 자신과 아버지의 모습을 직시하며 산업사회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또한 그는 아버지와 자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허물

고자 한다.

비프 : 아버지, 전 싸구려예요. 아버지도 그렇구요.

윌리 :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비프를 향해) 난 그런 싸구려가 아니다. 난

윌리 로먼이야. 그리고 넌 비프 로먼이란 말이다.

Biff : *I'm a dime a dozen, and so are you!*

Willy : (turning on him now in an uncontrolled outburst) *I am not a dime a dozen! I am Willy Loman, and you are Biff Loman!* (125)

하지만 비프는 돈으로 환산된, 다시 말해 산업사회에서, 가족을 싸구려라는 말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후 아버지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에서 '더 이상 원망이 없다'(There's no spite in it any more)(125)는 말로 비프는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의 탓으로 돌리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무책임한 행동을 반성한다. 비프는 아버지의 타락과 몰락의 책임이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산업사회의 부정과 불의를 재현한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결국 아버지와 자신은 사회에 희생자일 뿐이며 산업사회에서 싸구려이지만 가족에서는 가장인 아버지를 이해한 것이다.

윌리 : 응 비프가 (흥분하여 눈을 크게 뜨고) 그놈이 울었어! 애비한테 안겨서 울었다니까!(부성애에 벽차 목이 메며 마음속의 말을 외친다.) 그놈은, 그놈은 훌륭하게 될 거야!

(벤이 주방 바로 밖의 조명 속에서 나타난다)

벤 : 그림, 출중하지, 개 뒤에는 이만달러가 있는데

Willy : Oh, Biff! (*Staring wildly*) *He cried! Cried to me. (He is choking with his love, and now cried out his promise) That boy-that boy is going to be magnificent!*

(*Ben appears in the light just outside the kitchen*)

Ben : Yes, *outstanding*, with *twenty thousand* behind him. (126)

윌리는 비프에게서 인간적인 가족애를 느끼며 가장으로서 감동하고 있으나 자신의 자살로 생길 보상금 2만달러를 비프에게 남김으로써 산업사회에서 가장의 역할을 다하려고 한다. 아버지의 부재로 사회와 가족 사이에서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윌리로서는 산업사회의 물질주의에 자신을 팔게 되는 비극적 결과가 비록 미움이나 원망을 통해서지만 가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물질로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비프의 깨달음과 비교된다.

아버지와의 단절양상은 둘째 아들 해피에게서도 나타난다. 해피는 아버지로부터 무시되고 관심을 받지 못한 아들이다. 윌리가 형 벤에 의해 아버지에게서 가려져 있었듯이, 해피는 항상 비프에 의해 자신의 존재가 가족으로부터 특히 아버지 윌리로부터 가려져 있다. 가부장제의 전통 가족 공동체의 질서로 볼 수 있는 서열로 인해 둘째인 해피는 역시 둘째로 태어난 윌리처럼 아버지로부터의 가족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하게 된다. 가족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

해 해피는 더욱 아버지를 답습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본 윌리의 모습은 산업사회에 비친 것이었다. 가족에서 해피는 아버지로부터 가족간의 유대감이나 책임감 등 건전한 가치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 만연한 가치관을 취할 수밖에 없다.

해피는 비도덕적 행동을 하거나 허풍을 떠는 점에서 산업사회에서의 아버지를 닮았다. 해피는 식당에서 만난 여자에게 사관학교를 나왔다고 하고 비프를 뉴욕 자이언츠팀의 쿼터백이라고 소개하며 허풍을 떠다. 또한 해피는 개인적인 일에 공금을 유용하고 근무중에 자리를 비운다든지 회사 간부의 애인을 빼앗는 등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태도를 보인다. 심지어 식당에서 ‘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그런 사람이지’(No, that's not my father. He's just a guy.)(111)라며 아버지를 냉정하게 외면하는 장면은 그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아버지를 가장이 아니라 사회적 실패자로 생각하는 해피의 아버지부재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비프 : 아버지께 좀 잘해드리지 그래?

해피 : 나말이야?

비프 : 아버지한테 조금도 관심 없지, 헵?

해피 : 무슨 소리하는 거야? 난 말이지. . .

비프 : 난 알고 있어. 넌 아버지에게 관심이 조금도 없어. . . .

Biff : Why don't you do something for him?

Happy : Me!

Biff : Don't you give a damn for him, Hap?

Happy : *What're you talking about? I'm the one who -*

Biff : *I sense it, you don't give a good goddam about him . . . (110)*

윌리가 해피에게 무관심했듯이 해피도 아버지에게 깊은 관심이 없다. 그가 어릴 때부터 겪은 아버지의 부재양상은 인근 아파트로 거처를 옮김으로서 가족공동체 속에서의 부자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아버지의 근황이나 심정에 대해 해피는 관심이 없다.

해피 : 그건 몰랐는데요.

린다 : 너는 궁금해 하지도 않았지. 다른데서 돈을 쓴다고 아버지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거야.

해피 : 그때 돈 드리지 않았어요?

Happy : (*Indignantly*) *I didn't know that, Mom.*

Linda : *You never asked, my dear! Now that you get your spending money someplace else you don't trouble your mind with him.*

Happy : *But I gave you money last - (60)*

해피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가 사회관계처럼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아버지 윌리가 느낀 아버지부재로 인한 양상을 해피가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해피는 윌리의 화신이다라는 평(Barker 90)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해피도 개인으로써 뿐만 아니라 사회가 만든 가

치기준에 의한 희생자로 나타난다. 해피가 원하는 것은 윌리와 마찬가지로 가족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형 비프가 농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는 떠나지 마. 여기서 일자리를 구해’(Don’t leave again, will you? You’ll find a job here.)(34)라며 형을 붙잡거나 형과 같이 서부에서 일을 하자는 말에 ‘그게 내가 꿈꾸는 일이다’ (That’s what I dream about)(32)라고 말하는 장면은 윌리가 형 벤을 떠 올리며 화목했던 가족애를 나누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하지만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에 이르기 까지 3대에 걸쳐 내려오는 가족공동체의 해체과정을 보여주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비프와는 달리 결혼을 하겠다는 해피의 언급은 이런 양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암시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와 정신적, 도덕적 가치에 대한 본질적인 욕구의 충족은 변함없이 가족의 과제로 남아있게 된다.

#### IV. 결 론

사회극작가인 밀러는 개인과 사회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극작세계를 구축하면서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나약한 인간에 대한 현대사회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탐구했다. 그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말미암아 지연이나 우애 등 친교집단의 전통적인 유대감이 사라지고 전통적인 사회질서와 생활양식이 붕괴되는 사회적 양상을 주목하였다. 그는 미국사회에 엄청난 정신적 윤리적 충격을 주었던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체험하면서 산업사회의 소시민이 겪는 비극적 상황이 그들의 내적인 갈등보다는 그를 둘러싼 거대한 부조리가 토해내는 사회문제에 기인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가 개인에 대한 또는 개인이 사회에 대한 관계의 중요성을 작품들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 즉 개인이 공동체에서 겪게 되는 상황을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킴으로써 개인이나 그가 속한 가족과 사회 전체가 한 배의 운명공동체임을 알려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소시민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가족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자살이라는 파국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그의 정체성과 인간존엄성이 기반을 두고 있는 공동체가 해체되는 양상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극에서 주인공 윌리는 현실과 이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허망한 성공의 꿈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그는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평범한 소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나타나진다. 그는 직장인으로서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반영된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세대로부터 이어받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이 산업사회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그로 인해 그

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윌리는 시대착오적인 산업사회의 희생자로 전락하면서 그가 속한 전통사회가 산업사회에서 도태되고 결국 해체되는 비극적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이 작품은 사회 체계의 변동과 더불어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내외적인 구조 및 관계의 변화가 전통적인 가족공동체까지 해체되는 양상으로 발전하여 사회구조의 근본을 흔들게 됨을 보여주었다. 즉 사회의 갈등과 모순이 가족에까지 침투해 전통적 가족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현대사회에서 가족해체 위기는 구시대의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적 추세에 밀려서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전통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집안의 가장을 생계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며,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식과 아내와의 유대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이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기계적인 사회로의 급변과 이해타산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자본주의의 습성이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고, 가족 해체를 강요하여 현대적 비극을 일으키게 된다. 더욱이 재편되는 사회에 개인이나 가정이 순응하거나 따라가지 못하고 개인이 그렇듯이 가정도 비인간적인 사회에 대항하지 못하고는 해체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윌리는 가족에게 있어서 남편이고 또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가장의 위치를 소망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사회인 가정에 자신만의 가치관, 즉 전통적인 가치관을 주입함으로써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개별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해와 동정이라는 전통적인 가족애의 결핍으로 서로 결합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족공동체는 해체라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게 된다. 린다와 찰리와 의 관계에서 결혼과 친교로 맺어진 공동체가 사회에서 패배한 윌리에게 위안을 주기보다는 산업사회의 가치

관을 더욱 인식하게 한다. 또한 윌리의 두 아들인 비프와 해피와의 혈연 관계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가족적 위상이 산업사회의 관점에서 훼손되고 아버지의 사회적 패배가 아들에게 전이되어 나타나게 된다.

밀러는 윌리의 회상을 통해 전통사회와 산업사회를 대비시키며 사회인으로서 가족의 가장으로서 흔들리는 자신의 위상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다 자살로서 산업사회를 고발하는 소시민을 그렸다. 사회에서의 퇴출과 가장의 죽음을 전통사회의 붕괴 또는 해체로서 의미를 부여하며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의 비극으로 해석의 장을 확대시켜 볼 수 있다는 점에 이 작품의 위대성이 있다고 하겠다.

## 인 용 문 헌

박승위. 『현대사회와 인간소외』. 대구 : 영남대학교출판부, 1996.

Abbotson, Susan C. W. *Student Companion to Arthur Miller*.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2000.

Austin, Gayle. "The Exchange of Women and Male Homosocial Desire in Arthur Miller's *Death of a Salesman* and Lillian Hellman's *Another Part of the Forest*." *Feminist Rereading of Modern American Drama*. ed. Hune Schlueter. Rutherford: Fairleigh Dickinson UP, 1989.

Barker, Stephen. "The Crisis of Authenticity: Death of a Saleman and the Tragic Muse", *Approaches to Teaching Miller's Death of a Salesman*, ed. Mathew C. Roundane. New York: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995.

Bates, Barclay W. "The Last Past in Death of a Salesman". *Modern Drama* II(1968).

Blumberg, Paul. "Work as Alienation in the Plays of Arthur Miller", *Arthur Miller: New Perspectives*. ed. Robert A. Marti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2.

Brown, John Mason. *"Even as You and I", Death of a Salesman: Text and Criticism*. New York: Penguin Books, 1981.

Carson, Neil. *Arthur Miller*. London : The Macmillan Press, 1982.

Clurmen, Herold. "The Success Dream on the American Stage", in *Death of Salesman : Text and Criticism*, ed. Gerald Weales. N.Y.: Penguin Books Ltd., 1979.

Freedman, Morris. *American Drama in Social Context*. Illinois: Southern Illinios UP, 1971.

Fromm, Erich. *The Sane Society*. N. Y : Rinehart and Company Inc., 1959.

Griffin, Alice *Understanding Arthur Miller*. Columbia: U. of South Carolina P., 1996.

Hall. R. H. *Organizations: Structure and Process*. Prentice-Hall, 1977.

Hufel, Sheila. *Arthur Miller: The Burning Glass*, New York: The Citadel Press, 1965.

Hynes, Joseph A. "Attention must be paid", *Death of a Salesman: Text*

*and Criticism*,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7.

Jacobson, Irving. *Family Dreams in Death of a salesman*, *American Literature* 47, 1975.

Lyons, Charles. "Shepard's Family Trilogy and the Convention of Modern Realism" *Rereading Shepard*, ed. Leonard Wilcox. New York: St. Martin's, 1993.

Miller, Arthur. *The Portable Arthur Miller*. ed. Christopher Bigsby. New York: Penguin, 1995.

\_\_\_\_\_. *The Portable Arthur Miller, Biographical Notes*. ed. Harold Clurman. New York: Penguin, 1977.

\_\_\_\_\_. *The Theater Essays of Arthur Miller*. ed. Robert A. Martin. New York: Viking, 1978

\_\_\_\_\_. *Timebends, A life*. New York: Grove Press, 1987.

Nevins, Allan and Commager, Henry Steele. *A Pocket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 Washington Square Press Inc., 1967.

Parker, Brian. "Point of View in Arthur's Death of a Salesman",

*Arthur Miller: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Robert W. Corrigan. London: Prentice-Hall, 1969.

Popkin, Herry. "Arthur Miller: The Strange Encounter" *American Drama and Its Critics*, ed. Alan S. Downer. Chicago: Chicago UP, 1965.

Raymond Williams. *Drama from Ibsen to Brecht*. New York: Penguin Books, 1970.

# **The Crisis of Disintegrated Communities in *Death of a Salesman***

*Song, Sun-Ok*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 **Abstract**

Arthur Miller was one of the most prominent American Social dramatists and was influenced by the economic depression in the 1930's. This Depression and the hardships he had experienced early in his life, helped him to discover the reality of being a common man. It was on this reality that he based his tragedy. This tragedy dealt mostly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society.

Miller compar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society to that of water and a fish. This meant that like a fish in water, man lives within society. Men have hopes and dreams in this society, which surrounds them. When their surrounding does not materialize these hopes and dreams, man, or 'fish', gets disappointed and frustrated.

Miller was very conscious of his strong criticism of society, and of

his interest in *man's agony and alienation* within that society. Miller discovered this systematic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society*.

In '*Death of a Salesman*', *man endured tragedy* because his *absolute value* was neglected by industrial society. Miller demonstrated in this play that the economic depression not only evolved an entire society into an accelerated industrialization, and forced it to change rapidly and immensely, but also drove the individual into mental depression, forced the traditional society to be disintegrated.

According to Miller, there is a big difference concept of 'family' pursued by industrial society when compared to the individual or family member. This difference made all parties concerned misunderstand the social agreement, and this destroyed traditional society. It also affected family values, finally bringing tragedy to the individual and their family.

In conclusion, Miller's work teaches us the lesson that *man* should exist in society, and society should be a part of man. They can not be separate entities. *Man* shares sincerity and responsibility within society, thus our society respects the value of human beings instead of industrialization.

## 감사의 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시종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박옥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부족한 논문을 다듬어 주신 김동율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논문을 작성하는데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박정길, 장세은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대학원 전 과정을 통해 자상한 지도와 따뜻한 충고를 해주신 이효용, 김영철, 이건수 교수님과 영어영문학과 전 교수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옆에서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깊은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남편 **윤종휘**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